

# 주 일 예 배

2019년 10월 27일

인도: 박병섭목사

* 찬양 SONG OF PRAISE		다함께
*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194장	다함께
대표기도 PRAYER		박휘영전도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롬 8:1-11(Romans)	인도자
찬양 CHOIR		찬양대
말씀 SERMON	“성령 안에서의 삶” “Life Through the Spirit”	박병섭목사
헌금 OFFERING		다함께
* 헌금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찬송 HYMN	178장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박병섭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 교회소식

-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10,11월 헌금송:** 10/27: 에스더선교회 11/3: 글로벌선교회
-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Easter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ERTS)가 개강하였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임목사:** 이규본 목사님께서는 지난 목요일(10/24) 한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6(금) 장례: 김중희 권사(이규본목사님의 형수)  
10/27(토) 윤석진 총장의 콘서트(국회의사당 대강당)
- 성찬식:** 다음 주일(11/3)에 있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김남규, 박재현, 박휘영, 이응두
- 썸머타임:** 다음 주일(11/3)부터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새벽 2시→1시로)

## 금주의 말씀

(10. 27. 2019)

본문: 롬 8:1-11

제목: 성령 안에서의 삶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롬 8:5)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은 물질입니다. 자연에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흙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생기, 곧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지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흙과 생기가 합쳐져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부터 사람은 물질과 영이 절묘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 받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에 빠져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에게 들어와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들어올 때에 그냥 들어오지 않고 죄와 사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인간은 사망으로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구약시대에는 희생 제사를 드리므로 죄를 용서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삶이 완전히 둘로 나뉘진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육신을 좇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성령을 좇는 사람입니다.

### 1. 육신을 좇는 사람

육신을 좇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지향적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육신을 좇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의 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을 맺고 맙니다.

### 2. 성령을 좇는 사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성령을 여러 가지로 정의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9절 후반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령을 좇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 1:17)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다. 여기서 빛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아름다운 별들을 지으신 분이시다. ‘빛들의 아버지’이시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별처럼 조용하고 일정하신 분이시다. 옛날 교인들은 밤의 별이나 보면서 마음의 분노와 답답함을 삭였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별을 지으신 하나님이 잘 실감나지 않는 것 같다. 옛날 교인들은 답답하면 하늘의 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요즘은 혼자서 삭이고 또 삭이다가 우울증이 생기고 만다, 누군가에게 이야기 할 대상이 많지 않다.

여러분은 답답한 일이나 어려움이 오면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가? 아마 늘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포근하게 감싸주는 목사님이나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과 나누고 이야기 하면 좋을 것이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빛이다. 하나님은 이런 빛들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얼마나 포근한가!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똑같은 아버지시다. 잔잔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고난과 역울함을 당해도, 위험을 당해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침체되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고 있는가? 나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시는 분, 그분을 멀리하고 찾지 않는다. 불신이다. 이러할 때 우리가 겪는 시련이나 고난은 유익이 없다. 고생만 실컷 하고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고 고생을 끝내고 만다. 나는 피조물이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가깝고 친절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10272019)

**2019년 기도제목**

1. 말씀충만, 믿음충만, 성령충만, 지혜충만, 은혜충만, 권능충만 (행 6)
2. 내 집을 채우라 - 전도 (눅 14)
3.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엡 4)
4. 성전 건축을 위하여 (왕상 6, 학 1)
5. 주일학교, EM, Cell의 교육과 부흥을 위하여 (딤후 4)
6. GCTS와 ERTS의 발전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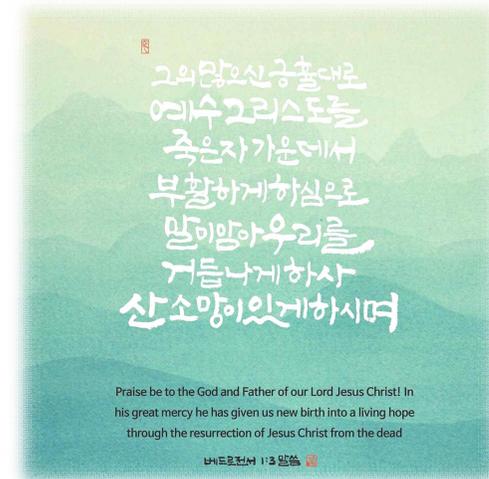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 \*담임 목사 : 이규본
- \*행정전도사 : 현종영
- \*교육전도사 : 최화숙, 전행복(EM)
- \*전도사 : 박휘영, 한우연
- \*장로 : 안석원                      \*권사 : 이재숙
- \*안수집사 : 김남규, 박재현, 이응두
- \*지휘 : 김영애                      \*반주 : 서난숙
- \*찬양대 : 김남규, 박휘영, 이재숙, 이 윤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월-토 5:5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셀 모임	모이는 장소

미주안인예수교장로회 (KAPC)  
**주 비 전 교 회**

산 소망으로 살라(벧전 1:3)  
“Live with the Living Hope”



**The Lord's Vision Community Church**

90 Plandome Road, Manhasset, NY 11030

TEL: (718) 787-8999, (856) 308-6997

담임목사: 이 규 본 (Rev. David Bon Rhee)

email: bonerhee@gmail.com    www.juvision.org